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 주일말씀에 이어서 각 센터, 분야마다 하나하나 말씀하겠습니다.

1. 하나님은 살아가는 데 각종으로 사랑을 퍼부어 주시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렇게도 크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곧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다.
2. 하나님은 메시아를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지 않으면, 죄의 대가를 계속 받으며 고통 속에 살기 때문이다.
3.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받는다. 가령 누구든지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괴롭듯이, 누구든지 좋은 길을 떠나서 고통스러운 길을 가면 괴롭듯이, 하나님이 고통을 주지 않으셔도 ‘법칙을 벗어난 세계’로 가면 괴롭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암벽길을 가는 것과 같고, 혹은 밥을 안 먹고 굶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그 같은 고통을 받는다. 이치는 같다.
4.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해 놓으신 것으로 곧, “자기 행위대로 되어라.” 하는 법이다. 자기 행위대로 선하게 살면 고통을 덜 받고 축복을 받으며 ‘선에 속한 사람’이 되고, 악하게 살면 그 행위대로 고통을 받으며 ‘악에 속한 사람’이 된다. - 하나님은 이같이 ‘자동 장치’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하나님이 일일이 인생들을 다 살피지 않으셔도, 이 말

숨으로 인해 살피는 격이 되는 것이다.

5. <자기>가 ‘가시밭길’을 가니 고통스럽고, <자기>가 ‘꽃길’을 가니 기쁘고 좋은 것이다. 시계에 넣는 배터리가 없으면 시계가 안 가고 배터리가 있으면 시계가 가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예 이같이 자기 행위대로 되도록 창조하셨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해 놓으시고, 그리함으로 고통을 벗어나도록 해 놓으셨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구원자’가 되게 해 놓으신 것이다. 곧 <자기>가 ‘자기 삶의 구원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근본적이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 하여금 구원을 하게 해 놓으셨다. 고로 <하나님이 가르치고 만든 자>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인간끼리는 구원이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

6.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역시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구원자>가 구원하는 것도 100% 맞지만, <구원자>를 구원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원존재자’ 이시고, 그것을 구원자에게 맡겨서 하게 하신다.

7. <근본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다. 고로 본인이 100%한 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이다. 왜? 본인을 창조하신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아예 못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 늘 <원존재자>를 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제대로 본다.” 하신다.
9. <잘못을 저질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핑계를 대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지만, <축복받을 때>는 “나 때문에 이렇게 받은 것이다. 내가 해서 받았다.” 한다. 그러나 모든 이상세계도, 나쁜 것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 많다. 왜?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병으로 때리시고,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축복받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스스로 깨닫게도 만드시기 때문이다. <각종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 오늘 말씀 핵심을 전해 주겠습니다.

10.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어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시키신다. 가장 먼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출해 내야 된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먼저다. 최대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 가령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구원받아라!” 하면, 그들이 “구원이 뭘니까? 나 좀 먼저 건져 줘요.” 한다. <육 구원> 먼저, 그다음이 ‘영 구원’이다. 왜? 사람이 매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견디는 것이 ‘육에 해당되는 것들’이니, ‘영에 해당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고로 <육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해결해 주고, <영의 세계, 영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받아들

인다.

11. <근본의 세계>를 연구하고, 알고, 파악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12. 먼저는 <육 있는 자들>이니, ‘육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해결해 줘야 한다. 고로 대화하면서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러면서 여건이 되면 순간의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해 주면 된다. 먼저 <인생에 대한 것>을 풀어 줘야, 그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들어간다. 물론 처음에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는 축구 할 때 중앙선에서 골대까지 바로 볼을 차는 것과 같아서 너무 멀어서 볼이 잘 안 들어간다. 조금 더 달려가서, 조여 들어가서 골대에 가까이 갈수록 골인하기가 쉽다. 이와 같이 모든 대화도 먼저는 가까이 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넣으면 된다.
13. <구원에 해당되는 일>은 ‘주’와 같이 해야 된다. 주와 같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14. 자기가 주와 같이 해서 죄에서 끄집어냈으면,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다. <섭리인들>이 끄집어냈으면, ‘섭리사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고로 <섭리사 족속>이 되게 하기 위해 ‘말씀’을 전해 자기 백성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15. 거의 모든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 시대’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 겉으로는 7번, 8번, 10번씩

외면해도 그래도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된다.

16.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구원자’를 믿고 따르게 하여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17. <멸망>이란 ‘죽어 버리는 것’이다.

18. 죽으면, 육도 영도 사망의 세계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된다.

19.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영원한 희망과 소망’이 없다.

20. <새 시대에 와서 휴거를 이룬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황금성 천국, 하나님 보좌 앞 세계’에 거하며 사는 기쁨을 영원히 누린다. 시대 말씀을 듣고,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않고서는 이 기쁨을 모른다. 돈이 수천억, 수조 원이 있어도 그 기쁨을 못 누린다.

21. <휴거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돈으로도 못 누리고, 명예로도 못 누린다. 세상 왕들이 휴거된 자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못 누린다. 아예 안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때문이다.

22. 매일 마약 주사를 맞고, 매일 이성애 취해 살아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았을 때>만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쁘고 만족하다. 마치 그릇의 냄

새나는 음식물은 뜨거운 물로 싹 씻어 내야 해결되듯, 근본의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그 외의 것으로는 안 된다.

23.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내서 사랑을 계속해 준다. 고로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

24. 가령 하나님이 지금 “섭리사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다면, 그 사랑은 평생 간다. <평생 기쁨>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성 사랑을 하고 좋아해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통해 하시는 “나, 너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을 못 따라간다.

25.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영원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는 그 말에는 ‘영원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왜? 메시아는 지구상의 사탄을 다 멸하고 이긴 자이기 때문이다. <이긴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신다. 그래야 사탄도 꿈쩍 못 한다.

26. <사탄>도 일을 저지르면, 그 자리에서 사망 불바다로 가서 고통을 받는다. 영적 죽음의 죽음을 계속 거듭하는 것이다.

27. <시대 신부들>은 ‘하나님의 신부권 마패’가 있으니, 사탄과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도 함께하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8.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내서, ‘사랑의 역사’를 누리게

해 주신다. <사랑>이 그렇게도 크다.

29. <영적인 사랑>은 ‘육적인 사랑’을 넘어 그 위에 있다. 가령 꿀은 췌는데, 설탕은 안 췌다고 하자. <설탕>은 ‘이성적 사랑’이고, <꿀>은 ‘영적인 사랑’이다. 꿀 속에 설탕이 다 들어 있듯이, 이같이 <이성적 사랑>을 안 거처도, <영적인 사랑>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이다.
30. 이성 관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사는 그 기쁨을 따라갈 수 없다. <설탕>이 ‘꿀’을 못 따라가는 것이다.
31.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성 사랑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따라간다.
32. 선생이 <시대 선고>를 받았을 때, 성자에게 “나 사랑해요?”라고 했다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지구상에서 최고 사랑을 많이 받아 놓고서, 내가 너를 배신했다는 말이나?” 하시며 그때 숨을 못 쉬게 만드셨다. 그때 성령님과 성자에게 알았다고 하면서, 사랑만 한다면 시대 선고를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셨다.
33. 흔히 생각하기를, 사랑하는데 왜 그같이 대하냐고 이유를 단다. 사랑하면 아무 고통 없이 자기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받는 자’ 까지 전체를 담당하고 살리라고 하는 것이다.

34.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내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다.

35. <하나님의 사랑>은 들을수록, 행할수록 끝없이 빛이 나는 ‘황금 덩어리’다. 더 이상적으로 ‘이상세계’를 이루며 나간다.
-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이다. 이는 재벌도, 명예가도 못 누린다. 이들을 보면, 처음에는 “내가 뭐가 되면 기쁘고 즐겁게 살겠다.” 했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그렇게도 괴롭다는 것이다.

36. 선생은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살겠다고 했다. 그때 당시에는 선생이 ‘시대 사명’을 아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었다. 결국 지금까지 그 일을 하면서 후회 없이, 기쁘게 해 왔다. 그동안 근본의 마음이 기쁘지 않고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없었다.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그렇게도 좋다는 것이다.

◎ 오늘 아침 말씀의 핵심입니다.

37.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내서 그에게 ‘사랑’을 계속 베풀게 하셨다.

38.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내서, 모든 것을 계속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렵히 알고 해 주시겠느냐. 다만, 어떤 것은 받기까지 고통을 받기도 하니, 이런 것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 말씀 끝났습니다.